

부 고

메리 죠앤 MARY JOANNE 수녀

ND 5497

죤앤 루이즈 위텐버그 Joanne Louise WITTENBURG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40 년 11 월 27 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서 원 1961 년 8 월 16 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사 망 2026 년 10 월 4 일 캘리포니아 타우젠드 옥스

메리 죤앤 수녀는 해리 윌리엄과 플로렌스 위텐버그 부부의 첫째 딸이었다. 몇 년 사이에 남동생 짐, 여동생 일레인, 또 다른 남동생 밥이 가족에 합류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자란 메리 죤앤은 어릴 적부터 그 도시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가졌으며, 항상 자신의 지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 했다. 아버지는 관리직으로 인해 여러 곳을 다녔는데, 종종 온 가족을 데리고 다니며 업무와 여가를 겸하곤 했다. 죤앤은 이러한 여행들이 남부 캘리포니아와 여행과 역사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 주었다고 회상했다.

죤앤이 생후 9 개월이 되었을 때, 가족은 오버랜드 애비뉴에 있는 노틀담 수녀회 건너편 동네인 체비엇 힐스에 정착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노틀담 수녀회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죤앤은 캘리포니아의 초창기 수녀들 중 많은 이들을 알고 사랑했다.

로올라 대학교에서 역사 및 사회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수녀는 몇 년간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1987 년, 역사와 연구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아 로스앤젤레스 대교구 교육 재단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리비우 신학교에서 1 년간 학생들의 영어 학습을 돕는 기회를 얻었다. 귀국 후에는 2002 년부터 2013 년까지 로스앤젤레스 대교구 대성당 문서실 담당으로 초빙되어 근무했다. 노틀담 센터로 이사한 후에도 이 일을 계속 도왔다. 병세가 악화되던 마지막 시기에 로저 마호니 추기경은 공동체에 기도를 약속하고 대교구에 공헌한 수녀에게 감사를 표하는 특별 서한을 보냈다.

역사 저술로 잘 알려진 죤앤 수녀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추억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사랑의 집』을 집필한 후, 『불을 펴뜨리다: 1924-2010 년 캘리포니아 노틀담 수녀회 이야기』를 집필하여 출간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의 역사』를 공동 집필했는데, 특히 본당 초등학교의 역사에 관한 장을 저술하는 데 기여했다.

가장 최근에는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메리 죤앤 수녀는 수녀회의 서신과 역사적 간행물을 디지털로 보존하기 위해 스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수녀는 노틀담 센터의 연감을 꼼꼼히 관리하고, 영성 독서 도서관을 감독했으며, 시간을 내어 아름다운 담요를 뜨개질하고 우리 유치원 아이들을 방문하기도 했다.

수녀는 노틀담 센터에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입회 자서전에 적었던 말을 실현했다. “노틀담 수녀로서 나의 삶이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수녀는 정확히 이를 행했다.